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13

2019.9.1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들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_ 아모스 5:11, 23~24

오늘의 주요기사

- 2면 존 슈나이더 목사 이임 인사
- 3면 교회 소식
- 4~5면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
- 6~9면 여름수련회 특집
- 10면 함즐함울 캠페인
- 11면 목회칼럼
- 12면 알립니다

교회일정

- 9/1(주일) 성찬주일
- 9/3(화) 양육클래스, 늘푸른대학 개강
- 9/4(수) 겨자씨인도자교육 2학기 시작
- 9/6(금) 겨자씨모임 2학기 개강
- 9/8(주일) 정기당회
- 9/12(목)~14(토) 추석 연휴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그분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라이브!

> 기사 4면

이임 인사

주님의교회를 떠나며



첫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주님의교회는 제가 전임사역자로 섬긴 첫 교회입니다. 이제 임기를 마칠 때가 되니, 마치 첫사랑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뒤적이는 기분으로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신출내기 목사였던 제게는 이곳에서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첫 설교, 처음 주관해본 성찬, 첫 세례, 첫 주례, 그리고 첫 외국 생활.

6년 전, 저는 신대원을 갓 졸업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2013년 여름을 돌이켜보노라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쉽게 이곳으로 향한 길이 제 앞에 열렸는지 여전히 놀랍기만 합니다. 마치 푸른 신호등만 켜진 백제고분로를 내달리는 기분이었죠. 5월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곧이어 6월에 목사 안수를 확정된 뒤, 그해 8월 11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 뒤인 8월 28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덕분에 저는 오자마자 바로 제가 인도하는 생애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또 하필 9월 첫 주일이라 성찬도 있었죠. 당황할 틈도, 뭔가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단지 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지, 또 예배당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건, 그 첫 주일에 단지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건, 심지어 예배당이 중고등학교 교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학생용 책걸상에 앉은 교인들은 꼭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매끈한 검은색 목사 가운 속에 불안함과 초조함을 숨긴 채 말이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목사라는 기분은 잘 안 들지만, 적어도 사람들 보기에 어느 정도 목사처럼 보이긴 하겠지.”

제가 속한 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에서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는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하는 “시무 장로”와 구별하는 말입니다. 새내기 목사인 제 눈에는 이게 참 역설적인 명칭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대부분 제 공식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늘 제가 배울 게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했던 모든 사역이 곧 배움의 경험이었습니다. 설교 준비와 설교, 성경공부 인도, 또한 예배에서 만난 모든 이들, 그리고 한국어교실과 하늘꿈학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 수업이 없을 때는 최대한 한국어를 익히려 노력했죠.

하루하루가 제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기회였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섬기면서 가장 즐거워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가르치러 왔지만, 사실 배웠습니다. 주기 위해 왔지만, 되레 받았습니다. 섬기러 왔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교회에서 보낸 이 시간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받은 모든 것을, 목사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것입니다. 여기서 보낸 지난 6년은 제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사랑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법이니깐요.

존 슈나이더 목사 / 손경민 전도사 번역

They say you never forget your first love. Church of the Lord was the first church that I served as a full-time pastor. As my term now draws to a close, I find myself reminiscing, like flipping through the pages of a photo album containing photos of a first love. As a first-time pastor, everything I experienced here was a first for me: first sermon as an ordained pastor, first time presiding over the Lord's Supper, first baptism, first wedding, not to mention first time living abroad.

I arrived in Seoul six years ago fresh from seminary. Looking back to the summer of 2013, I'm still amazed at how quickly and easily the path opened for me to come here, like driving down Baekjegobun-ro with nothing but green lights before me. I graduated from seminary in May, was approved for ordination in June, was ordained on August 11, and then arrived in Seoul two weeks later, on August 28. It was a Wednesday evening. I had to prepare for my first worship that Sunday, which also happened to be the first of the month, a Communion Sunday. There was little time to panic or even think...I just had to do.

I didn't know what to expect. I didn't know how many people there would be in worship or what the worship space would look like. Still, I was surprised that there were only about twenty people that first Sunday. Even more surprising was that the worship space was a classroom! The congregation sat behind student desks like they were preparing to take an exam. And there I was, masking my insecurity and nervousness behind a flowing black clerical gown. "I may not feel like a pastor," I thought to myself, "but at least I will look the part."

In my denomination, the PCUSA, pastors are known as "teaching elders," as opposed to the elders who govern the church, who are "ruling elders." As a new pastor, I found that title ironic (I still do). My role may have been to teach the Word of God, but I was constantly aware that I had so much to learn. Everything I did was a learning experience sermon preparation, preaching, leading and listening in Bible study, and all the many names and faces that I learned in the worship service, the Korean class, and the Heavenly Dream School ministry. Plus, when not learning how to be a pastor, I was learning as much Korean as I could.

Each day was an opportunity to learn something new, and that is one of the things I have most enjoyed about serving as a pastor here. I came to teach, but I learned. I came to give, but I received. I came to serve, but I was served. I will be forever grateful for my time spent with Church of the Lord. All that I learned and received here I will carry with me, not only as a pastor but as a person. My six years here have been an unforgettable experience. After all, you never forget your first love.

Pastor John Schneider

창립 31주년 기념 전교인 사경회

이재철 목사,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 주제로 열강

주님의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전교인 사경회가 지난 7월 2~4일까지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이라는 주제로 이재철 목사를 강사로 초청, 주님의교회 대예배당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인생에 대해”(딤후 4:6~8), 둘째 날은 “사랑에 대해”(요 13:34~35), 셋째 날은 “섬김에 대해”(시 94:8~9)라는 제

목으로 진행된 이번 사경회는 21년 전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재철 목사가 오랜만에 주님의교회를 방문하여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교회 공동체의 큰 기대를 모았다. 이재철 목사는 지난 2005년 7월 100주년기념교회의 제1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지난해 11월 퇴임한 바 있다.



퇴임 후에는 후임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창으로 낙향, 목장과 집필에 전념해왔다. 이번 사경회에서 이재철 목사는 첫날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았고, 다음날은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사랑임을 설교했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이번 사경회에는 주님의교회 교인뿐 아니라 인근 주민,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까지 참석하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대예배당을 가득 채웠으며, 미처 대예배당에 입실하지 못한 교인들은 1층 중예배실, 소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시청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한편, 설교를 마친 이재철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려는 행렬이 끝없이 펼쳐지기도 했다.

함줄함울



교회 소식

2019 항존직 선거 막 올라

2019년 항존직 선거 과정의 하나인 항존직후보자 추천 투표가 8월 4일 본당 지하 공간 다목적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28일에는 중직자 선거인 명부 확인 과정이 진행되면서 2019년 항존직선거의 막이 오른 바 있다. 후보자추천 투표 선거인은 항존직(은퇴·사임·협동 장로, 시무·은퇴 안수집사, 시무·은퇴 권사), 겨자씨

인도자, 제직부서 부서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8월 4일 열린 후보자 투표 결과 선거인 총 765명 가운데 397명이 투표하여 5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로 작성된 장로·권사·안수집사 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당회에서 9월 초에 공천과정을 거친 후 최종 후보자명단이 확정될 예정이다. 함줄함울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기도 용어 편 6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된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때 기도 인도자가 기도의 마무리를 하면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다. 의탁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는 의미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거의 ‘그가 대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응답의 행위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이 예배를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방관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필요할 시는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는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로 쓸 수 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그분께 다시 들려드린다는 일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이들 가운데 마치 사람을 훈계하듯 설교처럼 기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아버지”를 부르라고 가르치셨다(마 6: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함줄함울 정리

여름특집 | 제11회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

“그분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라이브!”

청소년사역원에서 주최하고, SWITCH MINISTRY(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생, 재학생으로 구성)가 주관하는 제11회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가 7월25일(목)-27(토)까지 김마리아회관(주님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릉, 대전, 여수, 양주, 부산, 음성, 안산, 청주, 포항, 화성, 청송, 동해, 광주 등 28개 교회에서 온 139명의 학생들과 47명의 스위치 미니스트리(SWITCH MINISTRY) 스텝들, 청소년사역원 지원부 가족들, 그리고 큰 도움을 주신 교회 직원분들, 정신학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 만들어간 2박 3일은 감동과 웃음, 감사와 사랑, 일치와 연

합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아이들의 정원/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이 말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고민해야 하며,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고 자기만의 삶의 소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라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아이 마음의 성장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생명을 돌보고 키우려면,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익과 성과에 집착하는 뿌리 깊은 잘못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각각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분열과 분리, 소외와 갈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용납과 수용,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살아있는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고유한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은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못 사람을 보듬는 사랑과 생명을 공유했던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일에 마음과 몸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경순 목사



사역 간증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를 마치고

제11회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가 7월 25~27일에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전국 28개 미자립교회 13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첫날 남쪽 지방부터 큰 비가 내렸지만, 여수, 부산, 안동, 청송, 삼척, 춘천 등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모든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라이브!”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된 수련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간 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만 올해도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멀리에서 온 여학생 3명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교회 출석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더구나 교회의 수련회는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여는 예배가 끝나고 조편성을 하고 방배정이 끝났는데 이 학생들은 수련회를 못 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목사님과 저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돌아가겠다는 아이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그들이 견디기 힘든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이들은 대화 후, 힘들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솔해 오신 전도사님, 그리고 수련회를 섬기는 스텝과 곁에 있는 우리 모두

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한 시간 한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첫날 저녁도 먹지 않겠다던 아이들이 둘째 날 아침에는 한결 밝은 표정으로 식사하러 온 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이 학생들은 수련회가 재밌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단 한 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던 이 아이들은 주님이 함께하시고 만지셔서 절제할 수 있게 하였고 끝까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2박3일의 수련회 안에는,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감동의 이야기와 함께 아이들 각자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건네줄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가하였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함께 먹고 대화하며 정을 주었던 그 3명 여학생들을 위한 기도는 더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수련회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해마다 신청하는 교회와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교회 여건(숙소, 샤워시설 등)이 허락치 않아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미자립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주님의교회가 더 품고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2월부터 준비하며 수고해주신 Switch ministry 섬김이들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신기숙 권사 / 청사원지원부 부장

학생 간증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 사랑방 교회에 다니고 있는 고3 김태규입니다. 저는 전도사인 이모의 권유로 이모가 섬기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번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 “LIVE”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시간대에 여름성경학교를 섬기는 이모를 도와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련회에 아무 기대가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도 아무 기대가 없었고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처음 생각과는 달리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누렸고 부모님의 권유와 강요로 참석하게 된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뎠던 친구가 수련회 내내 밝아지는 것도 신기했고 소극적인 아이들이 찬양과 율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이들이 바뀐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에 다녀와서 주일에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에 기대감도 없었고 가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하였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수련회의 중심이 되었던 6개의 프로그램들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둘째 날 저녁 집회와 ‘진로와소명’특강이 대학수시와 취업의 기로에 서있는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하신 강사님의 말씀과 둘째 날 저녁 집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잠시 했을 정도로 올해가 고3이라 내년은 기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들을 위해 몸의 수고와 마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스위치 미니스트리 스텝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태규 학생 / 사랑방교회 고3



교역자 간증

수련회라는 선물

올해 전국교회청소년 수련회는 수련회를 함께 준비했던 모든 분들부터 참석했던 모든 친구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선물들을 받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도 이번 전국교회청소년 수련회는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제3회 전국교회청소년 수련회에 고3이라는 학생의 신분으로 참석했었던 수련회 참석자였었고 올해에는 수련회 준비를 도울 수 있었던 전도사의 자리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으로 수련회를 참석하고자 했을 때를 떠올려 생각해 보니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선뜻 수련회를 바로 참석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서 수련회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가 의문이었고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서 시간 보내는 것이 가치가 있을지 걱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당일 수련회 프로그램이 하나 둘씩 시작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 강사분들의 강의, 준비된 찬양팀들의 찬양집회는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 주고 묵혀있던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나 자신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 그리고 청년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한 조가 되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재미는 저에게 공동체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알게 해주었고 내 주변에 또 다른 기독교인 포대 친구가 함께 서 있음을 느끼며 그 자체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처음에 가졌던 불안한 마음과 달리 2박 3일이라는 정말 잊지 못할 선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함께 돕고 준비하면서 학생일 때 왜 이 수련회가 좋았는지 그 이유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되고 일정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청소년 아이들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수련회를 위해 학교와 교회 사이, 청소년사역원과 스위치 미니스트리(SWITCH MINISTRY)팀 사이 서로가 조절하고 맞춰야 할 부분들도 많았지만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같은 목적이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풍성하고 깊은 수련회라는 선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위치 미니스트리팀은 어른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 맞춰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는지를 모든 일정 속에 잘 녹아내려 몸소 보여주며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팀들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전파할 때 어떤 상자 속에 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것이 전달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으로만 고집하여 만든 상자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게 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어찌면 일반 종이 상자로 그쳐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고민과 고심 끝에 만든 상자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게 된다면 이는 친구들 각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 상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에서 전국교회청소년 수련회라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큰 선물들을 매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양선 전도사

여름특집 | 유아숲 (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7월 20일(토)~21일(일) 주님의교회에서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주제로 유아숲 연합 성경학교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대예배실에서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반디의 모험’, 찬양파티, 가정 연계 ‘유아숲 만나만나’ 프로젝트 나눔 등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686명이 참석한 유아숲 가족의 풍성한 여름 말씀 잔치였습니다. (어린이 238명, 부모 340명, 교사 108명 참석)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다짐하였습니다.

처음 연합으로 진행된 유아숲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아숲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각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사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름특집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바이블 프렌즈”

저희 포도나무 유년부는 이번 여름(7.26(금)~27(토)), 무박2일 동안 교회에서 ‘바이블 프렌즈’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성경속 친구들(바이블 프렌즈)을 말씀, 연극, 물놀이 게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을 때 백성들을 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3명의 이스라엘 민족 영웅들을 만난 우리 포도나무 유년부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름특집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성.열.하.자”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햇살뜨락 초등부 80여명의 학생들과 30여명의 선생님들이 안성 너리굴 문화 마을로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성.열.하.자'(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찬양하며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름특집 |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바이블 프렌즈”

초등학교 5,6학년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아람드리 소년부는 7월 26일~28일간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바이블 프렌즈'라는 주제로 말씀, 꿈,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어린이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부 아이들은 공과 공부,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물놀이, 캠프파이어 등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꿈 그리고 기도로 채워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름특집 | 중등부 수련회

“자만추”

지난 7월 19일~21일, 중학생 60명과 교사 60명, 총 120명이 참여한 중등부 수련회가 강원도 홍천 가람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인 “자만추”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무엇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기 바라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 경험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해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름특집 | 고등부 수련회

“더 빅 픽처”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강원도 홍천 ‘가람 리조트’에서 주님의 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에는 학생 65명과 교사 40명, 총 105명이 참여했습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The big picture” 그리고 핵심성구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겠노라는 결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름특집 | 청소년 비전트립

“택하신 세대, 부름받은 나”

청소년부(담당 임경순 목사)는 지난 7월 27일(토)부터 8월 1일(수)까지 5박 6일간 일본 나가사키 신앙교육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중고등부에서 사전 교육을 수료한 학생으로 19명이 참가하였고, 교사 5명, 청소년부 교역자 2명이 함께 하였으며,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나가사키 성지 전문가 이세영 목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신앙교육여행은 “택하신 세대, 부름받은 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독교 선교사, 현지 교회, 원폭 자료관, 강제징용 자료관, 군함도 등을 탐방하며 신앙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간증

교회 안에 모여 있어 아름답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비전트립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이라 기대감이 컸다. 동시에 이 시기에 일본을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비전트립이었지만, 나가사키의 여러 곳을 가보고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는 밤에 나가사키의 야경을 보며 시작하였다. 그때 이세영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일본의 가로등을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이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빛이 약하지만, 멀리서 보면 이 가로등이 모여 아름다운 야경이 된다는 것이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한없이 나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감동을 주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여 있음으로써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 엔도 슈사쿠 문학관에서 침묵의 비까지 2km 정도를 걸어가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다. 기독교 신자가 많지 않은 일본에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찬양들은 함께 부르고 기도할 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비전트립 중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대화 할 기회가 많아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니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특별히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이세영 목사님, 함께 웃고 여러 이야기 나누며 시간을 보냈던 왕상현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알차고 배울 것이 많았던 일정과 좋은 친구들, 형, 누나들 덕분에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김현서 학생 / 중등부

여름특집 | 청년부 수련회

“참된 신부가 되라”

8월 23일(금)-25일(주일) 안성 영락 수양관에서 “참된 신부가 되라”라는 주제로 2019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현호 선교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청년의 때에 어떻게 거룩한 주의 신부로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듣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작공산책, 공동체 프로그램, 특강, 청년 간증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운 수련회였습니다. 여름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까지 흘려 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줄함울 캠페인 | 본질을 생각하는 교회 ㉔

청소년 사역과 “50대 50 정신”의 뿌리는 같습니다

저성장 시대와 교육의 과열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율이 전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성장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전보다 못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더 잘살게 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계에서 전례 없이 빠른 성장을 했던 우리 사회에는 좀 더 급격하게 다가왔다는 것뿐입니다.

저성장시대에는 아이를 낳아도 적게 낳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제 밖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교육의 과열입니다. 이미 높은 경제 수준에서 저성장이라는 위기 아닌 위기의식이 보태어져서 하나 또는 둘 밖에 안되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니 부모가 가진 위기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자신을 즐겁게 할 일로 넘쳐납니다. 게임, 영상, SNS 등 부모가 전혀 모르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어른들이 가진 육체적 본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폭력과 음란 영상물, 도를 넘은 이성교제 등을 부모가 눈치채지 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런 행위를 부모가 요구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말입니다. 이런 일은 대학교 생활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과 신앙생활의 괴리

이런 사회현상이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정이라고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도 학교라는 세상에 노출되어있으니깐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식에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모순은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도 자녀가 커서 버젓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주일학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기를 자녀에게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생활하며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부모의 생각과 태도가 바뀝니다. 세상을 이겨야 할 믿음이 위기 아닌 위기의식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청소년기를 넘기는 부모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당연히 모든 자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정이 여유가 있든 없든, 믿음의 가정이든 아니든, 주어진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가는 자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과열된 교육을 성공적으로 뚫고 성년이 된 청년들에게도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실천 이념, 청소년 사역

우리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교회의 실천 이념에 포함한 이유는 단지 정신학원의 건물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청소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는 오히려 청소년 사역의 최소 즉 정신학원과 함께 있다는 것과 교회의 젊은 연령층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축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대의 올바른 청소년 사역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사회의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전적으로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부모가 아이의 교육과 생활을 전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50대 50의 정신은 신앙생활의 균형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재정을 교회와 사회에 절반씩 나누겠다는 정신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그 경계 너머와도 나누겠다는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신을 좀더 확장해서 우리 삶에 투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신앙의 삶과 사회의 삶을 일치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기성세대가 가치관을 전환해야 가능합니다.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목적 지향적 공부이어야 합니다. 주일에 학원에 가는 것 대신에 예배를

선택하면 우리 아이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과 소명의 목표의식이 생기며 자신이 하는 공부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배와 공부는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어 공부하는 아이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공부의 목적에 하나님 나라를 포함시켜야

이런 청소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공부에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공부의 결과를 자신뿐 아니라, 사회를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50대 50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름다운 결과를 자신에게 절반, 하나님에게 절반으로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청소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의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교회가 최소한 인구의 저성장을 막는데 앞장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줄함울

함줄함울 캠페인은 주님의교회 창립정신과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주님의교회 정체성이 “본질을 생각하는 교회”에 있다고 보고, 교회의 일상에서 본질을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입니다.

교회 소식

주님의교회 큐티 교재 <주님과 함께> 창간

2019년 8월, 주님의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월간 큐티 교재 창간호 <주님과 함께> 9월호가 발행되었다. 지난 7월 이 교재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전교인 상대로 공모를 한 바 있다. 응모한 후보작을 7월 14일, 21일 2주

에 걸쳐 전교인 투표에 부친 결과, 김태진 안수집사, 이종만 안수집사, 박혜성 집사, 배정애 집사, 신진영 집사, 이경해 집사, 이임숙 집사, 최유림 집사, 정지혜 전도사가 제안한 ‘주님과 함께’가 선정되었다. 선정자에게는 3

년 정기구독권, 차점자에게 1년 정기구독권, 참여자에게 창간호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되었다. 제호를 담은 창간호는 8월 18일 발간되었다. 1층 월만한 물가 서점에서 살 수 있다. 1권 가격은 2000원.

함줄함울



목회칼럼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맛벌이를 하셨다.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집에 있던 날이 있었다. 그런 날 엄마는 꼭 학교 다녀온 나에게 “수고했제? 한숨 자라”고 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사랑이 담긴 큰 위로였다.

우리는 앞만 보며 달리듯 살아가는 것이 행복도를 증가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경쟁하며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끊임없이 거역하며 더욱 죄 가운데 달려가기를 즐겨한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요한다. 예수님께서는 6일의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도 충분히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온전한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을 다 잘하겠다는 과도한

열정과 결심이 늘 나를 힘들게 했다. 결심으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순종하는 삶이 그분의 뜻을 알게 한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삶이 버티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단하고 위대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내고 버텨내고 시원한 가을바람에 행복해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지만, 때로는 신앙과 삶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 내 삶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무엇을 하느냐보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분명 일하는 인간(Human doing)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인간(Human being)으로 지음 받았다. 내 능력을 세상 앞에 입증해 보이고 싶은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한다. 그렇다. 바른 안식의 이해는, 우리 안에 ‘완료의 욕구와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

가을이 온다. 아니 왔다. 우리가 사는 모양은 가을이 아닌데 부지런한 자연은 어느새 가을을 데려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 주신다. 그것이 참 감사하다. 즐겨 듣는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단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 누구나 으뜸직스러운 동산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밤이다.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부해지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작아지고 낮아지도록, 숨어 있도록, 가난해지도록 기도해 본다. 장막 안에서 근심만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손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해 본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 보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말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내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이



거니실 만한 정원으로 가꾸고 싶다. 주께 하듯, 주가 하시듯.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교구 식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걸음이 더디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귀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느려도 바르게 지켜도 즐겁게 사람을 소중히 8교구 파이팅!

한시영 목사

사역 간증

2019 음악위원회 찬양대 연합수련회를 마치며

지난 8월 24일 토요일 우리교회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찬양대 연합수련회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다목적 교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호산나, 시온, 샬롬, 임마누엘, 미시오데이 등 우리교회 모든 찬양대와 주오오케스트라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찬양대 연합수련회는 안정수 안수집사님의 마음을 여는 찬양을 시작으로 김화수 목사님의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Brass Band’의 특별연주가 있었습니다. 금관악기로 이루어진 5명의 전문연주자가 멋진 선율의 곡들로 수련회 분위기를 고취시켜 주었고 특별히 ‘Tie A Yellow Ribbon’등의 명곡은 우리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연주에 이어 양재무 시온찬양대 지휘자님의 ‘하늘에 닿는 명품 찬양’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시작된 음향과 소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호산나 찬양에 대한 말씀, 우주의 별들도 고유한 음이 있으며 이들이 운행할 때 우주의 화음이 들린다는 피타고라스의 ‘천구의 이론’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찬양대는 목적을 가진 단체임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선율보다는 찬양의 가사에 집중함으로써 하늘에 닿는 명품 찬양, 환희의 찬양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친교를 위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바이러스 김명숙 집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김선미 집사님의 흥겨운 스트레칭 댄스로 가볍게 시작되었습니다. 큰 공 빨리 넘기기, 볼바운스, 긴



댄스실력은 큰웃음을 안겨주기에 충분했고 행운권 추첨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맛있는 저녁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집사님, 권사님들과 이름을 알아가고 대화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친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교회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들

번식교회 소식

광야의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주님의교회의 두 번째 번식교회인 광야의교회에서는 창립 8주년을 맞는 8월 25일 오후 4시 임창진 목사의 위임예배를 가졌다. 이날 광야의교회 교인뿐 아니라 주님의교회 김화수 목사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임창진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산성교회 교육전도사, 대명교회 전임 부목사, 큰은교회 부목사를 거쳐 2011년에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여 2017년까지 주님의교회 부목사로 재임한 바 있다. 2018년 3월 광야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날의 예배는 평양남노회 부노회장인 최재범 목사의 집례로 이루어졌으며 광야의교회 안보길 장로의 기도, 광야의교회 역사 동영상, 주님의교회 현효원 청년의 특별연주에 이어 김화수 목사의 “하나님만 바라라”제하의 설교로 이어졌다.

2부로 진행된 목사 위임식에서 평양남노회 위임국장인 최재범 목사의 주재 아래 서약과 위임기도, 공포, 위임패 증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 강남시찰 시찰장인 최영선 목사의 권면이 있었으며, 광야의교회 찬양팀의 축하 찬양, 위임받은 임창진 목사의 답사, 광고와 찬송이 이어졌고, 김화수 목사의 축도로 막을 내렸다.

교회법에 따르면, 위임목사란,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를 말하며, 위임식은 노회 주관으로 위임목사를 임명하는 예식을 말한다(총회 헌법 제5장 26조).

함글함글



교회소식

비전교회 이전감사예배

비전교회(윤대진 목사 시무)는 다문화이주민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로 국내선교위원회 다문화선교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9년 7월 6일 하남에서 곤지암으로 예배처소를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다문화선교부에서는 매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으며, 주일학교 교사로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문선교분과 이미용팀과 의료선교팀, 법조팀에서도 협력하여 봉사과 선교를 하고 있다. 비전교회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한인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신학교를 운영하여 신학생 양성 후 역파송 사역에도 힘쓰고 있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 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매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2019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교육안내

- 교육일정 : 2019년 9월 19일 ~ 12월 5일
매주 목요일 오후 1-5시
- 장 소 : 각당복지재단 강당 (종로구 경희궁1길 29)
- 대 상 :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
- 교 육 비 : 130,000원 (교재비포함)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본인부담 50,000원)
- 특 전 : 교육 수료 후 200시간 봉사 시 소정의 시험 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 등록문의 : 김영미 부장 010-5356-9473
홍정미 총무 010-6482-2572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